

知性の意味限定

헤-겔의 歷史哲學에 비추어①

金後善

知聲의 問題는 요새 어떤 原理的 理解를 要求하고 있다. 요지음, 적지 안흔 頭腦가 이 問題를 에워싸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智慧는 아직 別原理的 理解를 逮잡지 못하고 어떤 遠心的 迂回를 하고 있는 것 같다. 勿論 時代的 特殊性이 우리에게서 모든 中心과 方向을 빼아서 간 탓도 있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外在的 原因에만 還元하는 것은 너무나 無責任하다. 어쨌든 요새 頭腦는 混亂해 짓고 『地平』엔 해가 넘은 感이 적지 안다. 이 가운데서 船人은 □記를 이것고[잇엇고], 行客은 迷路에 섰고, 鑛夫는 □具를 이것고, 農夫는 보섭을 이즌 감이 있다.

元來, 모든 問題에는 오직 하나인 焦點이 있고, 모든 問題에 一定한 態度가 必要하다. 焦點에 노혀야 問題는 燃燒하고, 一定한 態度에서만 問題는 沸騰한다. 燃燒와 沸騰에서만 問題는 切實하고 緊切하다. 學術의 知性, 道德의 知性, 科學의 知性! 이것들의 要求도 勿論 조타. 여기에 적지 안흔 『휴머니즘』의 歷史的 意味와 價値를 承認하는데 吾人은 決코 吝嗇치 안다. 그러나 여기에는 問題는 잇서도 問題의 焦點은 업다. 이것은 어디까지 第二次的이다. 二次的이기 때문에 焦點과 態度를 가진 어떤 原理的인 問題의 解答을 爲先 必要로 하는 것이다. 果然 그러타면 知性 問題의 原理的 焦點, 又是 態度는 어디에 잇느냐? 現實的 段階 藝術이나 道德이나 科學을 良心的으로 生覺하여 본 사람이 잇다면 그는 이미 이 問題의 核心의 所在를 發見 했슬것이다. 요지음 우리 몇 사람의 손은 이미 이 問題의 核心門의 把手를 쥐지 안홀수 업다. 어떤 善良한 文藝 批評家 입은 이미 이 事實을 告白하였다. 『今日 모든 問題는 政治 問題에 부딪친다!』 勿論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이 말은 決코 政治의 모든 文化에 대한 優越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려오는 現實的 事態에 對한 민감하고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政治는 이미 歷史의 世界에 노혀 있다. 政治는 決코 政治에 끄치기

안는다. 政治的 諸技巧는 顯해지는 모든 問題를 허는 수 업시 어떤 樣式으로 던지 解決하지 안할 수 업다. 이것을 解決치 못할 때 一定한 政治는 後退하야 批冠한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政治의 永遠, 消滅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政治는 새로운 指導 原理, 새로운 理念을 그 旗幅에 노피 걸고 登場한다. 이러한 交替, 更生사이에 歷史는 움직이고 世界史의 精神은 自己를 宣場 하는것 이다.

그러므로 今日 政治 問題는 늘 世界史의 『遠近』에서 그 正當한 把握을 어들 수 있다. 知性 문제도 따라서 歷史的 遠近, 特히 歷史 哲學的 觀點에서 充分한 理解를 어들 수 있다.

우리가 燃燒시켜야하고 沸騰시켜야할 知性 問題의 焦點과 態度는 바로 여기에 잇는 것이다.

그러키 때문에 吾人은 이 小論의 全體를 통해서 問題의 知性을 歷史 哲學的 觀點에서 規定하고 나아가서 그의 限界를 提示할려고 한다. 歷史라는 것은 그림 果然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爲先問題이다. 吾人은 이것을 單純히 『헤-겔』에 依據하야 다음과 가티 理解해 노차. 『헤-겔』은 歷史를 人間의 理性活動의 目的論的 學問이라고 理解하였다. 다시 말하면 歷史는 『理性』이 個性的 人間이 諸文化的 活動을 通하야 自己를 實現하여가는 飛躍의 道程이다. 그러키 때문에 歷史에는 爲先 두 가지 原理가 前提된다.

第一原理는 『理性』一般, 卽 理念.

第二原理는 이 『理性一般』을 流動케하야 其自體에 잇서서는 抽象的 非現實的인 理性一般을 具體的, 現實的으로 實現하는 個性的 人間의 行爲.

第一을 『헤-겔』은 『歷史哲學講論』 『歷史에 잇서서의 理性(Vernunft in der Geschichte)에서 世界史의 『經(날)』이라고 불르고, 第二를 同時 同所에서 세계사의 『緯(씨)』라고 불렀다. 第一을 同時 다른 個所에서는 『精神一般』 或은 『原理一般』이라고 불렀고, 第二를 右와 同所에서 인간의 『情熱(Leidenschaft)』이라고 썼다.